

‘反文’ 깃발 치켜든尹... “정부 원전·부동산 정책 수정해야”

각계 각층 시민들 만나며 소통
친안함 표역·카이스트 등 방문
“현 정부 주택정책, 싸우는 것 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난해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 모씨의 유족을 만나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는 자격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캠프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일 공개·비공개 행보를 이어 가며 ‘반(反)문재인’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민심투어를 통해 사회 각계 각층의 시민들을 만나며 대선 도전의 명분을 쌓고 있다.

윤 전 총장이 주목한 것은 공정과 안보였다. 지난 6일 민심투어 첫 행선지로 대전국립현충원을 찾은 윤 전 총장은 방명록에 “목숨으로 지킨 대한민국, 공정과 상식으로 바로 세우겠다”라고 적었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무너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시대와 세대를 관통하는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다”며 공정을 강조한 바 있다.

이어 친안함 46용사묘역과 고(故) 한 주호 준위 묘소, 연평해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한 윤 전 총장은 기자들에게 “우리 국민들과 후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꼭 만들어야겠다는 각오와 결의를 다졌다”고 말했다.

대북 총돌로 희생된 전사자 묘소를 찾아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총장은 ‘탈원전 정책’을 문재인 정부의 약한 고리라 생각하고 관련 행보를 이어갔다.

지난 5일 주한규 원자핵공학과 교수를 만난 윤 전 총장은 “원전은 저비용, 친환경 에너지”라고 강조한 데 이어 6일 오후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로 이동해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영향을 받은 현장을 찾아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총장은 “에너지

정책은 산업 경쟁력과 국민의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중대한 문제이기에 전문적인 검토와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하는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에 대해 비판했다.

10일 가진 비공개 회동에서 윤 전 총장은 ‘정부의 책무’를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은 광화문에 위치한 캠프 사무실에서 지난해 북한군에 피살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들을 비공개로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이모 씨의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모든 과

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 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모씨의 유족은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사과정에서 해경으로부터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은 “(정부가) 각종 정찰자 산과 교신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국민에게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함에도 국가 기밀이란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은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11일 윤 전 총장은 김현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 본부장을 만나 “현 정부의 주택정책은 시장과 싸우는 정책”이라며 “특히 청년들이 겨우 일자리를 구해도 폭등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건 국가 미래를 위해서도 큰 문제”라며 현 부동산 정책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캠프 측은 본지와 통화에서 “윤 전 총장님은 자기만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계시다”며 “민심 투어를 통해 출마 선언에서 밝힌 그림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국제표준올림픽아드 국내서 비대면 개최

미래 표준 인재 양성을 위한 국제표준올림픽아드 대회가 8월 24~26일 국내에서 열린다.

11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16회 국제표준올림픽아드는 올해 코로나19로 비대면으로 열릴 예정이다. 최초로 참여하는 표준강국 독일과 함께 일본, 싱가포르, 중국, 인도네시아, 케냐, 르완다 등도 참가한다.

국제표준올림픽아드는 우리나라가 미래 표준인재 양성을 위해 창설한 세계 유일의 청소년 국제표준 경진대회다.

국내 예선 과정로 ‘생활 속에서 표준화가 되지 않아 불편한 사례를 발굴하고 해결 가능한 표준을 제안하는 것’으로 선정됐다. 서류 평가와 발표 평가를 통해 본선 진출팀을 선발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고용노동부 플랫폼 종사자 직업훈련 지원

배달, 택배 앱 등을 통해 일하는 디지털 플랫폼 종사자들이 정부 지원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참가자에게는 훈련비 전액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플랫폼 종사자 특화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플랫폼 종사자는 스마트폰 앱 등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일하는 노동자로 배달·운송 등이 대표적이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이 사업은 플랫폼 종사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고용부는 약 70억원 규모를 투입, 올해 말까지 9만4000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직업훈련에는 ‘데이터 라벨링 입문’, ‘생활정보 표준’, ‘아이돌봄 플랫폼 시터교육’, ‘플랫폼 택시 운수 종사자를 위한 프리미엄 서비스 역량 강화’ 등 6개 훈련 기관에서 10개 과정을 운영한다.

/세종=원승일 기자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 아이디어 공모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공모전이 열린다. 정부는 수상작을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1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미세먼지 저감 신규 정책 및 감축 수단 발굴’ 등을 주제로 열린다. 미세먼지 감축에 관심이 있는 국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환경부는 실현 가능성, 구체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해 대상(1점), 우수상(2점), 장려상(3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세종=원승일 기자

양승조, 최문순 탈락... 본 경선 오디션방식 ‘슈퍼워크’ 도입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당규 따라 순위, 득표수 비공개 9월 5일 최종 대선후보자 발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대선 본경선 무대에 진출한 최종 후보 6명을 선정하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시동을 걸었다.

이상민 민주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추미애·이재명·정세균·이낙연·박용진·김두관(기호순)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양승조·최문순 후보는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이재명·이낙연·추미애·정세균 4명의 후보는 여유 있게 본경선에 오를 것이라 관측이 많았고 박용진·김두관 후보가 민주당 대선 레이스에 승선했다.

민주당은 11일 오후 5시 40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대선 예비경선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당



추미애
前 법무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세균
前 국무총리



이낙연
前 국무총리



박용진
국회의원



김두관
국회의원

당은 지난 9일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사흘 동안 일반 국민과 당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예비경선에서 여론조사는 국민과 당원 여론조사에서 각각 50%를 반영했는데, 특별 당규에 따라 당장 순위나 득표수가 공개되진 않았다.

후보들은 경선 여론조사발표날까지 시민들을 찾아 현장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후 3시께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 서울대학교 기숙사를 방문했다. 이낙

연 전 대표는 최문순 강원지사과 언론 개혁을 논의했고, 정세균 국무총리는 제주도 일정을 소화했다.

단 1명의 민주당 대선후보를 가릴 본경선은 오디션 프로그램의 ‘슈퍼워크’ 방식을 도입하고 경선 선거인단을 3차례 모집해 투표를 진행한다. 국민과 일당원으로 구성된 1차 선거인단의 투표일은 8월 11~15일, 1차 마지막 투표일은 15일에 결과가 공개된다. 2차 투표는 8월 25~29일 진행되고 29일 개표 결과가 나온다. 마지막 3차 투표는 9월

1~5일에 투표하고 9월 5일 발표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12일부터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진행한다. 범야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 가능성이 있는 후보만 10명이 넘는다. 국민의힘 안에선 하태경 의원,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안상수 전 의원, 윤희숙 의원, 장기표 김해를 당협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했고 김태호 의원, 홍준표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 유승민 전 의원 등도 출마 가능성이 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조선업계 상반기 수주계약 267억弗... 13년만에 최대 실적

LNG 등 고부가가치 선박 수주 ↑

올해 상반기 들어 국내 조선업계 수주량이 호황기였던 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실적을 올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상반기 전 세계 발주량 2452만CGT(표준화물선 환산톤수)의 44% 가량인 1800만CGT를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했다고 11일 밝혔다. 계약금으로 환산하면 267억1000만 달러에 달한다.

이번 수주량은 전년 동기 대비 724% 증가한 수치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도 2배 넘게(183%) 늘었다. 조선업계 호황기인 2006~2008년 이후 13년 만에 최대 실적이다.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친환경 연료추진선 등 국내 조선업계가 선도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선박 중심 수주량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고부가가치선박은

전 세계 발주량 1189CGT 중 723만CGT(61%)를 국내 조선업계가 수주했다. 국내 전체 수주량의 66%를 차지한다.

선종별로 보면 대형 LNG 운반선의 경우 세계 발주량 전망이 국내 조선업계의 몫이었다. 운임 상승에 따라 발주가 증가한 대형 컨테이너선 81척,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27척도 수주했다.

이 실적에는 지난달 29일 국내 최대 원양 컨테이너선인 HMM과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이 계약한 1만3000TE

U급 대형 컨테이너선 12척(65만CGT, 1조8000억원)이 포함됐다. LNG와 에탄, 메탄올, 바이오연료 등을 연료로 쓰는 친환경 연료 추진선 수주도 480만CGT로 전년 동기 대비(53만CGT)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는 전 세계 발주량(685만CGT)의 70.1%에 달한다.

친환경 연료추진선 수주의 경우 2019년 전 세계 발주량의 60.9%에서 지난해 63.8%, 올 상반기 70% 등 최근 3년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친환경선박 시장에서 국내 조선업계가 경쟁우위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